光日春秋

한탕주의

강 준 만

'한탕주의'는 점잖은 말은 아니지만 널리 쓰이고 있다. 무슨 일이건 '한방'에 해결하려고 허황한 꿈을 꾸는 사람에게 비난조로 사용되곤 한다. 그러나 그 '허황한 꿈'이 이루어지면 그땐 뭐라고 할 건가? 그땐 '한탕주의' 대신 '모험주의'라는 말을 써야 하는가? 잠시 부정적인 어감을 잊고 한탕주의는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일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보자.

미국은 전형적인 한탕주의 국가다. 국가의 성립 자체가 그랬다. '아메리칸 드림'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미국식 한탕주의'가 적합하다. 미국뿐만이 아니다. 세계적인 강대국들은 모두 한탕주의 속성이 강한 나라들이다. 투기와 도박이 가장 크게 많이 일어난 나라들의 이름을 꼽아보시라. 결코 미국·영국·일본을 빼놓을 수 없다.

인터넷은 퇴조하던 한탕주의를 다시 불러 들였다. 아니 이전의 한탕주의보다 훨씬 더한 한탕주의를 만연시켰다. 빌 게이츠를 비롯한 인터넷 벼락부자들을 보라. 한국에서도 수많은 인터넷 벼락부자들이 탄생했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한탕주의에 성공할 때에 재미와 감동을 느낀다. 부잣집 자식이 출세하는 게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출발해 모험과 도박성 결단을 일삼으며 성공할 때에 재미와 감동이 가능해진다.

한탕주의는 그 어떤 문제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역동성을 입증해주는 증거로서의 의미가 있다. 문제는 역동성 과잉이다. 한탕주의의 일상화다. 작은 일을 소중히 하면서 평소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나갈 생각은 않고 적당한 기회를 잡아 모든 걸 한꺼번에 해결하고자 하는 심리가 우리 사회 전 분야에 만연해 있다.

잘 생각해보면 그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삶의 방식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심지어 대인관계에서도 그렇다.

누군가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면 그때그때 적절한 대응을 하면 좋을 텐데 그걸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다가 '건수'를 잡아 일시에 폭발시키곤 하다. 화끈해서 좋긴 한데,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설사 뜻을 이룬다 하더라도 응징의 수위가 너무 높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우리가 대화와 타협에 서투르거나 그걸 귀찮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중요한 건 한탕주의에 친화적인 사회적 토양이 정치와 행정의 한탕주의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행정이 평소 작은 문제들을 성의있게 다루면서 민생을 보살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외면하면서 문제가 악화되는 걸 방치해 둔 채 나중에 그걸 한방에 해결하겠다고 나섰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는 도처에 널려 있다.

더욱 비극적인 건 바로 그런 토양 때문에 정치·행정의 한탕주의가 자주 '개혁'의 증거인 양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온갖 한탕주의 공약이 난무한다. 유권자들은 그간 워낙 속아온 탓에 그게 다 '뻥'이라는 걸 알면서도, 화려한 공약이 없는 후보들보다는 그런 '뻥'을 선호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 밀도 때문일까? 아파트·자동차·집무실은 크고 넓을수록 좋고 담론은 거대할수록 좋다. 작은 일들을 소홀히 하고 거대담론을 좋아하는 건 우리의 유전자에 각인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갈등은 성장산업이 되어가고 있다. 갈등을 빚는 당사자들 모두가 한탕주의 심리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일까? 때론 거창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한탕주의가 워낙 만연하다보니 크게 말하는 사람과 집단일수록 도무지 신뢰가 가질 않는다.

하긴 신뢰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한탕주의는 시대정신이 아닌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영광의 비용으로 생각하는 게 속 편하겠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은 해보자. 이제 우린 한탕주의가 미덕일 수도 있었던 초고속성장의 단계는 지났다. 차분하게 내실을 다져가야 할 때다.

한탕주의에 대한 미련을 접고 작은 일들을 중요시해야 한다. 꾸준한 노력으로 성과를 거두려는 삶의 자세를 연습하는 동시에 그런 식으로 일하는 공직자를 정당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에겐 '벼락공부'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른들은 왜 그러는가?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 설

월드컵 D-30, 응원으로 갈등·분열녹이자

독일 월드컵에 참가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엔트리가 오늘 발표되는 등 월드컵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월드컵은 60억 지구촌 최대 축제다. 월드컵 개막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독일로 쏠리고 있다.

세계 4강 신화를 일궈낸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의 벅찬 감동이 지금도 생생하다. 2002 월드컵은 외환위기로 고통을 겪던 우리 국민들에게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줬다.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거리 응원의 열정적 에너지와 질서의식은 전 세계인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지금 우리 주변 상황은 2002년 월드컵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는 사상 유례없는 고유가와 원고(高)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해묵은 이념갈등은 사사건건 대립과 반목을 그치지 않고 있다. 파벌주의는 코드인사로 이름만 바뀌었고 지역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국축구대표팀은 이번에 '끝나지 않은 신화, 하나되는 한국(Never-ending Legend, United Korea)'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월드컵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엮는 마력이 있다. 월드컵에 쏟아질 국민들의 열정을 정치와 사회, 경제를 비롯해 모든 분야를 변화시키는 생산적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한다. 우리 사회 갈등과 분열을 녹이고 화해와 화합을 이루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독일 월드컵은 또 다시 대한민국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지난 2002 월드컵때 보여준 것처럼 경쟁 상대국을 널리 포용하는 열린 시민의식을 전 세계에 과시해야 한다. 월드컵으로 국가 이미지를 높일 때 대한민국 기업과 상품의 브랜드 가치는 제고되기 마련이다. 주도 면밀한 월드컵 마케팅 전략 수립으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독일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선전을 간절히 기원한다.

UN인권이사국된 한국 北인권 관심 가져야

어제 유엔총회에서 새로 발족한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이 44개 이사국중 하나로 당선된 것은 매우 의미깊다. 유엔인권이사회(Council)는 기존 인권위원회(Committee)를 강화한 것으로 회기와 참여국이 대폭 늘었고 그만큼 지구촌의 인권향상을 위한 감시활동을 영향력있게 수행하는 기구다. 한국이 이사국에 당선된 것은 우리가 국제사회에 인권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는 징표임은 물론 경제규모 세계 10위인 우리나라가 지구촌 인권향상에 대해 다른 나라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를 향해 인권을 말하기 전에 동족인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할 말을 못한다는 난처한 처지에 있다. 한국 정부는 7·4 남북 공동성명이래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하는 정책을 취하지 못했고 국민의 정부 이후로는 오히려 북한의 체제 안정이 한반도 안전과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왔다.

이 때문에 기아와 감시 속에 한계선 이하의 인권상황에 빠진 북한 주민들의 사정은 애써 덮어두는게 우리정부의 입장이었고 이는 야당을 비롯한 국내 보수세력의 강한 비난을 사왔다. 남북 화해무드에 도움될 것 없는 '북한 참상 알리기'는 통일부와 국정원이 앞장서 쉬쉬해왔고 이는 참여정부 들어서도 가장 골치 아픈 딜레마였다. 여기다 미 공화당 정부는 최근 북한인권문제를 북한압박의 중요이슈로 삼고 탈북자의 정치적 망명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일 계획이어서 우리정부를 난처하게 하고있다.

남북 대화는 정치적, 전략적 문제이고 인권은 항구적, 보편적 과제다. 유엔인권이사국이 된 한국이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함구한 채 아프리카의 인권을 이야기 하는 건 넌센스다. 이제 우리정부는 남북대화와 함께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병행하는 대북정책을 수립해야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 고

광주는 생산도시인가 소비도시인가?

이 병 화

대부분 광주주민들은 광주가 소비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산도시와 소비도시를 구분하는 경제학적 정의도 없고 명확한 기준도 없다. 이렇게 모호한 개념인데도 왜 많은 주민들이 광주를 소비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아마도 광주의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일반인들의 인식이 과연 맞는지 알기 위해서는 광주의 제조업 생산 규모를 타 도시와 비교해 보아야 한다.

인구 1인당 제조업 생산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길 경우 울산, 인천에는 뒤지나 대전, 대구, 부산보다도 앞서 전국 광역시 중 3위다.

따라서 우리 광주가 소비도시라는 일반의 인식은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이런 순위만을 갖고 광주를 생산도시라고 주장하는 것도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2분법적 구분 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광주가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적 도시로 변하고 있는가 소비적 도시로 고착화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보다 더 의미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광주의 제조업 기반이 최근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광주가 소비도시라는 오명은 머지않아 교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설비투자가 늘어나도 제조업체 취업자 수가 늘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조업 기반의 변화 추세를 알기 위해서는 제조업체 수, 제조업체 설비투자 규모 이외에 제조업체 취업자 수의 변화추세도 아울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광주는 우선 제조업체 수 증가율면에서 2001년 대비 2004년 기준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였다. 이 기간중 전국의 제조업체수는 7.0% 밖에 늘어나지 않았으나, 우리 광주에서는 28.0%나 늘어났다. 또 이러한 제조업체들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광역시 중 가장 높다.

이외에 제조업체 종사자 증가율도 광역시 중 1위를 차지하였다. 동일기간 광역시 평균 제조업체 고용증가율은 겨우 0.6%에 불과하였으나, 광주지역 제조업체 고용증가율은 18.2%나 되었다.

이러한 우리지역의 제조업기반강화 효과는 최근의 지역 제조업 생산증가율 및 수출증가율로 나타나고 있다.

2004년 대비 2005년 기준으로 전국의 수출증가율이 12.0%이었으나, 동일기간 광주지역의 수출증가율은 36.0%나 되어 전국 1위를 하였다.

도시 규모의 차이로 광주의 제조업 총생산액 규모는 부산, 대구, 인천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의 수출 규모는 인구규모가 월등히 큰 부산, 대구 보다 앞서 있다. 부산과 대구의 인구규모는 광주보다 각각 2.6배, 1.8배이나, 수출규모는 각각 68억불, 33억불에 불과하여 광주의 총 수출액 72억불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전적으로 우리 시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적극적인 투자유치의 산물이다.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과제이다.

최근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기업도, 지방도, 국가도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내일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광주시에서 미래의 신산업인 광산업·나노기술·신소재·초정밀·의료 바이오 등의 R&D 기반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광주시 정무부시장〉

기 고

아직도 결핵환자가 있나?

송 영 웅

결핵하면 "아직도 결핵환자가 있나? "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가난한 시절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 알고 있는 결핵은 그 동안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다가 우리가 퇴치되었다고 믿고 방심하는 사이 해마다 수만명씩 새로운 결핵환자가 발생하여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또 매년 3천명씩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한창 활동해야할 20~30대가 높은 발병율을 보이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최근 섬 지역 인근 고등학교에서 무려 13명이 집단으로 발병하여 보건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이 학생들은 모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최초로 감염된 학생에 의해 결핵균이 전염되었으리라 추정된다.

결핵균은 사람의 몸속에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결핵환자가 유일한 전염원이다.

환자의 침을 통해 공기 전염되기 때문에 PC방,노래방 등 밀폐된 장소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발병율을 높이는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입시 및 취업스트레스와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 청소년의 면역력이 약해진 탓에 쉽게 감염이 된다.

기침이 2주 이상 계속되거나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미열이 지속되면 서둘러 진단을 받아보아야 한다.

감기일 것이다 방심하면 치료가 어려워 진다.

결핵은 2주정도 격리 치료를 받은 뒤 일상생활을 하면서 6개월정도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 완치된다.

최근 난치성 결핵이란 말을 접하게 되는데, 결핵균이 약물에 내성을 갖게 되어 치료가 잘 안되는 결핵이란 뜻이다.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거나 몸을 보해야 한다고 엉뚱한 한약재를 먹거나 하여 불완전한 치료를 하게 된 경우 내성이 생겨 병을 악화시키게 되어 다제내성 결핵으로 진행하게 된다.

폐·척추결핵·관절결핵으로 진행되어 신체적 불구가 되기도 하며 목숨을 앗아가기도 한다.

결핵퇴치 사업에 대한 범국가적인 관심과 정부의 막대한 예산 투자가 필요한 때이다.

결핵환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청소년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한 예방과 홍보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통일이후의 북한의 결핵환자 치료관리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 우리 자손들에게 결핵 없는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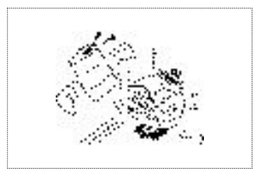
無 等 鼓

에너지 전쟁

"유가가 다시 세계의 성장에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재등장했다" 영국의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의 경고다.

국제 원유 값은 1973년 배럴당 3달러였다. 중동전쟁으로 1년 새 12달러로 4배나 뛰면서 1차 오일쇼크가 닥쳤다. 다시 79년 이란-이라크전 발발로 원유 값이 배럴당 14달러에서 35달러로 배 이상 급등하면서 2차 쇼크가 닥쳤다.

이후 원유 값은 20~30달러에서 안정세를 유지하다 2001년 들어 다시 뛰기 시작해 70달러 벽을 넘어섰다. 3차 오일쇼크라 할만하다.



에너지를 찾고 지키기 위한 글로벌 전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남미에서는 에너지 자원 국유화 바람이 거세다. 부시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최근 앞다퉈 아프리카를 순방했다. 이는 원유의 중동 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한 자원확보 외교의 전형이다.

일본은 지난 1998년부터 '선두주자(Top Runner) 방식'이란 에너지 절약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전기제품의 에너지 절약 및 자동차 연비 기준을 가장 성능이 뛰어난 제품에 맞춰 설정하는 제도다. 이 정책으로 일본은 70% 이상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뒀다.

일본은 한 발 더 나가 오는 7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선두주자 방식'을 채택하도록 각국에 요청할 방침이다. 선두주자 방식이 국제적으로 확산하면 일본 기업들이 경쟁 우위에 서게 될 것을 노린 포석이다.

한국은 석유 소비 세계 9위, 세계 5위의 수입국이다. 그런데도 정부나 국민은 글로벌 에너지 전쟁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97년 4월 "에너지 문제는 이 시대에 미국이 직면할 가장 큰 도전"이라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은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터의 이 말은 30년 후 한국을 향한 경고인 듯하다.

/정재현 사회2부장 jhjung@kwangju.co.kr

쓰레기 천국된 낚시터 주변 청소하는 자세필요

유명한 낚시터는 안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낚시를 좋아하는데, 민물 낚시터의 경우 저수지가 여간 보기 흉한 게 아니다.

낚싯꾼들이 버린 쓰레기 때문인데 잡은 물고기로 음식을 해 먹고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저수지에 버리는가 하면 떡밥·지렁이 등 낚시에 사용하고 남은 물건도 방치하거나 버려두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

왔다 가면 그만인 낚싯꾼들과 달리 저수지 주변 주민들에겐 다르다. 악취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내버려둘 수 도 없는데 농사 일 끝마치고 와서 남이 버린 쓰레기까지 치워야 하겠는가.

이러한 낚시 문화를 바꿔야 한다. 가지고 간 음식물은 되가져가고 낚시를 한 다음에는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버리자.

▲오정환·광주시 광산구 오선동

무분별한 할인쿠폰… 소비자 혼란만 가중

며칠 전 할인권을 가지고 대리점을 방문하면 사은 행사 가격으로 구두를 살 수 있다는 안내장이 포함된 상품권을 구두 제조회사로부터 우편으로 발송 받고 대리점을 찾았다.

그런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제한돼 있을 뿐만 아니라 할인권만으로 살 수 있는 품목은 아예 진열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할인권 외에 몇 만원을 더 지불해야 살 수 있는 상품들만 있어 오히려 금액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

재고품이 늘어나면서 각종 할인 행사도 늘어나는 것 같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할인 쿠폰의 가치는 기대 이하다. 쿠폰 구매자보다 현금 구매자를 더 선호하는 대리점의 태도를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소비자의 관심을 끌겠다며 할인 쿠폰을 무분별하게 발행하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얄팍한 상술로 여겨지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

▲유지영·목포시 수강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鎬 편집국장 池炯源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AX	227-9500〉	〈FA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AX	02-773-9335〉
〈FA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